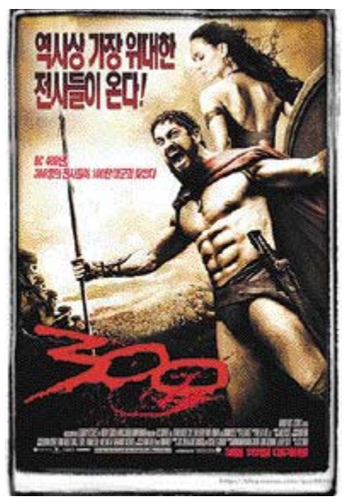
퍼펙트 論述

언어논술-오리엔탈리즘

동·서양 융합하는 새로운 '동양관' 정립해야

1. 영화 '300'과 오리엔탈리즘

영화 '300'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등장 인물들의 빨래판스러운 복근 강화를 위해 실제로 합숙을 한 데다, 모든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으나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놀라움까지! 이 영화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테르몬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에 맞서 죽을 때까지 맹렬하게 싸운 전투를 재현한다. 승산도 없는 엄청난 대군에 맞선 스파르타 군인들의 용맹과 희생은 그리스로 하여금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민주주의라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케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비는 그들의 복근에 침 흘리고, 흠잡을 데 없는 CG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들의 장렬한 최후에 눈물흘리셨던 분들, 자 침과 눈물 닦으시고 이 영화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



동양을 야만적으로 묘사해 논란을 빚었던 영화 '300'의 포스터.

'300'이라는 영화는 문화적으로 볼 때 '오리엔탈리즘'이 일부 투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영화를 본 사람은 조금 눈치챘을 수 있지만, 유독 우리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으니 바로 극과 극으로 비친 서양의 대표격인 스파르타 군과 동양의 대표격인 페르시아 군의 모습이다. 화면에 비치는 페르시아 군의 모습은 온갖 피어싱에 거동조차 불편해 보이는 크세르크세스를 필두로 영혼이 없는 '이모탈'을 비롯하여 기형적인 모습의 괴물들로 비친다. 게다가 주술사까지 등장하여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약병을 던져댄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용맹한 스파르타 군인들과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소 과장되고 심하게 보면 흉물스럽기까지 한 모양을 갖춘 페르시아 군인들의 모습. 영화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으로 투영되어 있을까?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Orient'에 'ism'이 합성된 용어이긴 하지만, 결코 오리엔트가 주체가 되어 생성된 용어가 아니다. 이 개념에서 동양은 객체요, 타자로서 주체에 의해 관찰되고, 탐구되고, 정의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동양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특히 샤토브리앙과 같은 프랑스 작가는 저속하고 야만적인 동양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유럽의 이분법적 사고로 동양과 서양을 문맹과 문명으로 나누는 기계적인 도식관계가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 따라서 영화 '300'을 제작한 감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영화 전면에는 은연 중에 저급하고 미개한, 동양의 모습 즉, '오리엔탈리즘'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임 미 정
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 강사

동영상 강의
www.nonsul.1318hi.com

2.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작년에 문화코드로 새롭게 대두된 단어 중 돋보이는 것은 역시 '된장녀'이다. '된장녀'라는 말은 '외국 고급 명품이나 문화를 좇아 허영심이 가득 찬 삶으로 일관하여 한국 여성의 정체성을 잃은 여자'를 의미한다. 된장녀의 핵심 키워드는 누가 뭐라 해도 '허영'이다. 커피는 반드시 '스타벅스'것을 마셔야 되고, 시계는 '까르띠에'급 이상을 차야 하고, 즐겨 입는 의복 메이커는 '~여야 한다'는 식의 소비 행태는 전형적인 허영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소비에 매몰된 일부 여성들의 행태로만 볼 수는 없다.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본다면 '된장녀'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동양의 문물을 서양의 것에 비해 못하다, 처진다고 평가하여 비하하는 것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우리는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우리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서구의 문화를 무조건 숭상하게 되고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가 한 민족의 삶의 양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때 민족 정기를 잃은 민족, 자긍심이 없는 민족은 발전하기 어렵다. 서구의 시각으로 아무리 동양을 문맹과 야만으로 규정짓는다고 해도 우리 민족 스스로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한 민족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문화 수준이 높고 민족의 자긍심이 높은 민족은 국난을 타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세계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따라서 '된장녀'라는 문화 코드는 우리에게 어떤 반성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3. 포스트오리엔탈리즘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든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 반성과 서구 시각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잡는 포스트오리엔탈리즘으로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문화의 세계화 현상은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정체성을 생성하고 있다. 이제 동양은 서양인들에게 지배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동양의 정신적인 사상과 실천을 채택하고 있는 서양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몇십 년에 걸쳐 개인적으로든 조직 안에서든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적 방식들을 채택했는데, 그 범위는 명상과 요가의 규칙적인 연습에서부터 선이나 티벳불교를 포함하여 철저한 종교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또한 서구 물질 문명의 한계를 동양의 정신 문화로 극복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상이 도교의 심오한 내용이다. '물아일체'와 '무위자연' 등을 통해 이미 동양은 B.C 5세기부터 생태학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서양은 물질문명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생태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서양과 동양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문명/문맹, 지성/야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 오히려 동양과 서양이 바뀌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유럽의 계몽 운동과 관련된 거대한 보편적 기획이 이제 종말을 맞으면서 전 지구적 힘의 받침점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행되고 있다. 르네상스기에 일어났던 동양에서 서양으로의 힘의 전환이 이제 역전되고 있는 과정이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경제가 급부상하고 중국과 인도가 다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등의 현상들은 동양의 위대한 문명이 다시 부흥의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안의 터무니없는 '오리엔탈리즘'을 벗어 던지고 포스트오리엔탈리즘의 개념 정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결국 포스트오리엔탈리즘이란 이분법에서 벗어나 동양과 서양이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동양관'의 정립이 될 것이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현대 사회가 세계의 모순과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창조해가야 할 것이다.

실전연습

제시문 (가)에 드러나 있는 태도를 제시문 (나)와 관련지어 비판하시오.

(가)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은 또 그들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독일인, 러시아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이탈리아인, 스위스인도 내가 이 책에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하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곧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동양은 유럽에 단지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지였던 토지이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연원이었으며, 유럽 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나아가 동양은 유럽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은 어떤 의미에서도 단순히 상상 속의 존재에 그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실질적인 문명과 문화의 구성 부분을 형성했다. 곧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문화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는 언설로서 표현하고 표상한다. 그러한 언설은 제도, 낱말, 학문, 이미지, 주의 주장, 나아가 식민지의 관료제도나 식민지적 스타일로써 구성된다. 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며, 그것들이 서로 의존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오리엔탈리즘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학문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아직도 다수 연구기관에 의해 통용되고 있다. 동양의 특수한 또는 일반적인 측면에 관하여 강의하거나 집필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리엔탈리스트이다. 그리고 오리엔탈리스트가 행하는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

(중략)

오리엔탈리즘이 갖는 학문적인 의미와, 그것이 갖는 다소간의 이미지에 관한 의미 사이에는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다. 18세기 말 이후 이러한 두 가지 사이에는 상당한 양의 그리고 엄격히 규율된 – 심지어 통제된 – 교류가 있었다. 여기서 나는 오리엔탈리즘이 갖는 제3의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본 두 가지 의미 내용의 어느 것보다도,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을 논하고 그것을 분석할 때 대충 그 출발점을 18세기말로 잡는다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취급하기 위한 – 동양에 관하여 무엇을 서술하거나, 도양에 관한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도양을 묘사하거나, 강의하거나 또는 그곳에 식민지를 세우거나 통치하기 위한 – 동업 조합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

(중략)

요컨대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누구도 동양을 스스로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나는,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관하여 말해야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규제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불가피하게 그곳에 조준이 맞추어지는 관심의 네트워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나) 우리는 식인 풍습의 긍정적인 형태 – 그 기원이 신비적, 주술적 또는 종교적인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 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상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적의 시체의 살점들을 먹음으로써 식인종은 죽은 자의 덕을 획득하려 하거나 또는 그 힘들을 중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매우 비밀스럽게 거행되며, 그들이 먹고자 하는 그 음식물을 다른 음식물과 섞거나 빻아 가루로 만든, 유기물 약간을 합해 먹는다. 그리고 식인 풍습의 요소가 보다 공개적으로 인정되었을 때일지라도, 도덕적인 근거에서 그러한 습관을 저주한다는 사실은, 시체의 물질적인 파괴에 의해서 위태로워질 어떤 육체적 부활이나 또는 영혼과 육체의 연결과 여기에 따르는 이원론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확신들은 의식적인 식인 풍습의 의미로 시해되고 있는 것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인종을 비난하는 이유인 죽음의 신성함에 대한 무시의 정도는,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용인하고 있는 사실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약 어떤 다른 사회의 관찰자가 조사하게 된다면, 우리들 자신의 어떤 관계들이 그에게는 우리가 비문명적이라고 간주하는 식인 풍습과 유사한 종류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들의 재판과 형벌의 습관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만약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것들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되는 사회형을 구별해 보고 싶어질 것이다. 즉, 식인 풍습을 실행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그들을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변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자기네 육체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우리들 사회 같은 두 번째 유형의 사회는, 소위 말하는 앙트로페미를 채택하는 사회이다.

즉,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여 그들은 정반대의 해결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끔찍한 존재들을 일정 기간 또는 영원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다. 이 존재들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시설들 가운데서 인간성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당한다. 우리가 미개적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회에 있어서 이 같은 관습은 극심한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오직 우리와는 대칭적인 관습들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야만적이라고 간주하듯이 우리들 자신도 그들에게는 야만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 레비스트로스, 『슬픈열대』

용봉(구)금보부동산
☎(代)430-6100 핸 016-610-9444
(문흥초교입구)
☞북구 우산동 원룸(구동기소 뒤)
대지:304㎡(91.9py) 연면적:568.69㎡(171.9py),투룸18실 원룸1실 보증금:9,300만원 월660만원 2007년 9월 준공예정 매매가:8억5천만원
☞광산구 월곡동 원룸(하남농협 부근)
대지:228㎡(69py) 연면적:304㎡(103py),투룸3실 보증금:1500만원 월105만원 원룸1실 보증금:3600만원 월360만원 2007년 9월 준공예정 매매가:4억7천만원
☞전대후문(최고상권)
대지:216.1㎡(65.3py) 연면적:390㎡(118py),4층건물 최근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8억
☞전대후문 고시텔
대지:161.9㎡(49py) 연면적:320.6㎡(97py),고시텔27실 월720만원 수입예정가 2007년 9월 준공예정 매매가:5억2천만원
☞북구 우산동(무등도서관 부근)
대지:231.4㎡(70py) 연면적:528.9㎡(160py), 4층건물 매매가:3억5천만원
☞북구 우산동(무등도서관 부근)
대지:193.8㎡(63py)연면적:396.69㎡(120py), 3층건물 매매가:2억6천만원
☞북구 양산동
대지:330.5㎡(100py) 연면적:148.7㎡(45py), 매매가:1억3천만원
☞서구 화정동(주공아파트 부근)
대지:208㎡(63py) 투룸 12실 현가득 매매가:1억1500만원
☞북구 용봉동(구 천일버스종점 부근)
대지:1,388.4㎡(420py) 매매:평당 270만원
☞전남 담양군 봉산면 관리지역 (2차선도로적합)
대지:3,564㎡(1,080py) 매매:평당 16만원 관리지역:3041㎡(920py) 매매가:평당 20만원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대지:3,636㎡(1100py)중 661㎡(200py) 대지로 자목련경매매가:평당 35만원
☞전남 장성군 동화면 관리지역 (도로적합)
관리지역:1,322㎡(400py) 매매가:평당 9만원 유실수 다량식재 건축허가 가능

LC타워(주)
☎(代)972-8004, 핸.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입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유명메이커 운집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병의원 임대
50~250평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사무실 임대
27~400평
사업 동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전화주십시요!
부동산 교환 환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
- 중개업자 중개 환영 -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8-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충장로 대지 75평 5층건물 2억/1,700만 21억
·금남로 문화전당역 대로변 5층 1억5천/900만 20억
·전대후문 대로변 75평 3층 8천만/800만 16억
·매동 15m×15m코너 대지 50평 6층 2천만/270만 3억
·황금동 리안아파트근처 89평 2억/900만 20억
·광산구 구 도청옆 112평 단층건물 10억
·조대 대로변 대지 226평 단층 평당350만원
·금호동 종합아파트앞 대로변 330평 단층 당400만
토지매매
·운림동 신라에식장앞 대로접 480평 당200만(전체전용됨)
·주월동 잠미아파트앞 대200평 당250만
·광·송간 공항전철역 옆 대로접 1,400평 당100만
·봉선동 25m 도로접 700평 당 300만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800평 당200만
·운남동 삼성아파트 후문앞 코너 192평 당200만
·문흥동 개발제한구역 입야 1만평 당1만5천
·도촌동 60m 도로개설중 옆 자연녹지 5천평, 2천평, 당65만
·선암동 호대앞 대로변 1,300평 당150만
·선암동 호대앞 1,000평 당90만
·지산동 녹지 1,100평 당 35만
·선교동 입야 4만평 당3만
·광산구 덕림동 관리지역 3,200평 당6만
·화순 도곡 입야(야산) 3만평 당1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3천평 당6만
·화순 도곡온천 인근 관리지역 2만평 당10만
·화순 남면 계곡집 관리지역 6만평 당1만원
·담양읍 입야(보전적합) 2,700평 당6만
전원주택
·운림동 성촌부락 대지 160평 당130만
·운림동 녹지 340평 당80만
·운림동 대지 280평 당50만
·화순 남면 한옥 대지 200평 4,000만
·화순 남면 대지, 전 한옥 750평 1억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700평 당30만
기타부동산
·화순 한천 급전지수주지 위쪽 입야 6만6천평 당7천원
·화순 계곡집 입야 14만평 당4천원(임도개설, 가로수식재)
·화순 남면 계곡집 주택1동 3천평 당3만
·화순 남면 입야 3만평 당 5천원
·장흥 회진 바닷가집 황토주택 4천평 당10만
※광주인근 관리지역 입야, 전, 답 구함
※황토주택 동호인을 모십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대65P 건150P 지상층 즉시 입주가능
◉9억 8천 빌딩
대100P 건140P 보증금 2억8천 월세500만원
◉7억3천 빌딩 급매
효남대 부근 광산구 서봉동 대270P 건287P 보10억8천 월450만원
◉5억 5천 원룸매매
자산동 대98P 건200P 보증금1억2천 월480만원
◉13억8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9억3천 월900만
◉12억짜리 8칸 빌딩부지 30×6m코너
보증금 1억 월550만원 포함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P, 건510P 보증금 2억 월세850만원
◉17억5천 1층 점포 12칸 빌딩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2억 하남공단 공장매매
대1,500P 건억900P
◉26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890P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현세3000만원 융자20억 포함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 현재 공장 운영중
◉125억 빌딩 급매
대675P 건6,000P
◉13억고시원
대110P 건300P 룸80개 월세1,500만원
주유소 전문중개
◉9억 주유소 급매
대300P 36m도로변
◉11억5천 시외 주유소
기사식당 카센타 포함 2000P 잠사접함
◉13억5천 시내 주유소 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LPG충전소, 주유소부지
광산구 36×10m코너, P당260만원 신개발지역
병원부지 전문중개
◉360P P당 750만원
◉210P P당 900만원
◉550P P당 650만원
땅
◉정비 공장부지 600P
상업지역 36m 도로접 P당 270만원
◉수완지구 상업지역
240P P당650만 대로변
◉쌍암동 310P 상업지역
20m도로접 P당390만원
◉골프연습장 부지 8,000P
자연녹지 북구 P당 50만원
◉펜션부지 섬진강 5,000P
전원주택부지,별장,관수원부지 P당 7만원
◉제1종주거지역 1,000P
P당1.00만원 20m도로접
◉담양 임야 15만P P당 1만원
◉관리지역 임야 7000P
담양P당8만7천원 진입로 있음 경사도 15°
◉오피스텔부지 300P
전대후문에서 6~7분 도보 P당175만원
◉과수원 묘지기능 그린벨트 임야
1,800P 남향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삼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P당4만원
◉둥림동 생산녹지 800P
매매8억
◉담양 임야 25만P
P당 3,000원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접 임야 P당 11만원
◉광산구 삼거동 관리지역 2000P
P당 10만원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3000세대 정문 10억 빌딩 급매
대90 건280
보증금 1억4,000 월 700만원
명당고급주택 7억
북구 대지 400P 건물 2층 정남향
급매 시외평 180만P
- P당 4만원 목장용지 및 잡종지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代)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1. 운천저수지 산책6층건물 긴급매매
대지:243평 건물:자상6층[산책건물] 병원,대형식당,노래방,카페,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물임. 토지 바로 옆에 주변 아파트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매우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운천저수지 개발등으로 투자가치가 급상승할 곳이 틀림없는 곳임
감정원 감정가격:19억원
긴급매매가:14억원
2. 월산동 [구,남강호텔] 긴급 매각
대지:90평 건물:지하1층(유흥노래룸) 지상8층:현, 모텔로 이용중임
월산동로터리 농협 비로뒷편~잠봉터널간 도로변소재
사무실, 병원, 모텔, 임대용건물로 건물 리모델링 활용가능한 지역임
감정원 감정가 12억원
긴급매매가 8억5천만!
임대가격 : 최신시설로 리모델링 공사 후 모텔로 임대가능
현금투자 최요지
1. 황룡 유촌리 입야 4만평 골프장, 무인모텔, 펜션, 수련원 가능 토지 매매가 평당 3만원
2. 목포 신외항 인근토지 약 3천평 긴급매매가 평당 20만원
비다가 보이는 간척지용 토지임
3. 전원주택 산책부지 송정리 동곡가는 길 주거지역 480평 매매가 평당 30만원 전망좋은 토지 즉시 건물 신축가능
A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북동 롯데백화점건너편 도로변 대지50평 2층건물 매매가 2억5천 (은행대출 2억안고 매매가능)
2. 광암교4거리 주유소옆 건물5층 대지71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 적합, 동림2지구 개발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3천(주인사정상 긴급매매)
3. 농성동 상공회의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정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1. 전대후문 도로변 건물6층 매각 전대후문 나약국 도로변 대지80평 건물 지하1층 문구점, PC방, 당구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가 보장되는 건물임
2.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상업지역 980평 긴급매매가 평당 450만원 오피스텔, 주상복합, 주차장용지 적합
3. 신안동사거리 대로변 대250평, 건평550평 건물3층, 감정가 25억 긴급매매가 15억 판매, 전시시설, 창고, 공장, 사무실, 병원, 용도 적합
4. 교회, 신축건물 부지 남구 진월동 광주대 입구 대지230평 매매가 평당 250만원 (주인 사정상 긴급매매)

2006년도 광주 남구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10,11,12월 예식, 송년모임 예약접수중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뷔페식으로...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